

CFSAN

REVIEW

SUMMER 2025 NO.20



ISSN 2733-5976

CFSAN

사단법인 학교건축창의융합포럼
CREATIVE CONVERGENCE FORUM FOR SCHOOL ARCHITECTURE

시몬 베유 실험캠퍼스, 불론뉴-비양쿠르, 프랑스



살와 & 셀마 미쿠

Designers : Salwa and Selma Mikou

©MikouDesignStudio Ltd. (FRANCE). All rights reserved.

Simone Veil Experimental Campus, Boulogne-Billancourt, FRANCE



기억과 미래를 잇는 경계, 시몬 베유 실험 캠퍼스

불로뉴-비양쿠르(Boulogne-Billancourt)에 들어선 "시몬 베유 실험 캠퍼스"(Simone Veil Experimental Campus)"는 공간적이자 상징적인 경계로서 기획되었다. 산업 유산과 현대 도시의 지향점 사이를 잇는 전환의 장소로, 도시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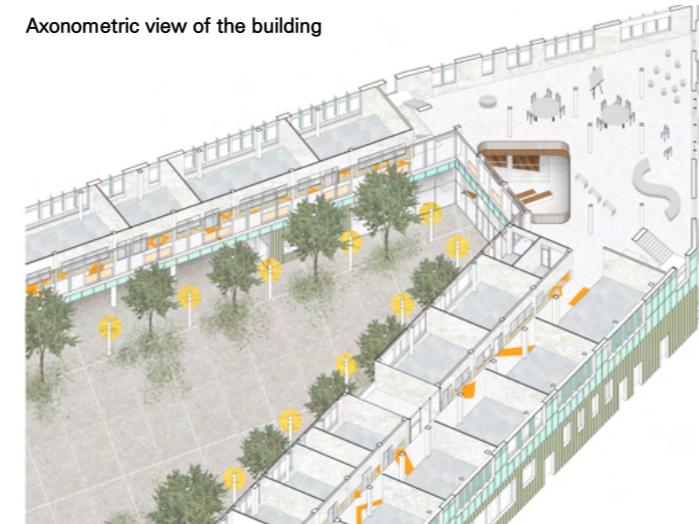
캠퍼스는 위동 거리(Rue de Meudon), 첼 게드 통과로(Traverse Jules Guesde), 첼 게드 광장(Place Jules Guesde)이 만나는 삼각형 대지에 자리하며, 밀도 높은 불로뉴의 역사적 도시조직과 과거 르노(Renault) 공장 부지를 재개발한 트라페즈(Trapèze) 생태지구의 개방적 스카이라인에 맞닿는 지점에 위치한다. 이 장소는 두 도시 세계의 경계이자 접점이다.

그 교차점 중심에는 르노 공장의 파사드 일부인 '프론통(fronton)'이 보존되어 우뚝 서 있다. 이 건축적 단편은 예술가 보누아 반 이니스(Benoit Van Innis)가 새긴 프랑스 공화국의 모토와 함께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다. 과거에는 노동자들의 출입문이었지만, 이제는 미래의 상상가, 학습자, 혁신가들을 위한 상징적 관문으로 재탄생한다. 이는 과거의 잔재가 아닌, 시민적 기억을 품은 상징적 경계로서 작동하며, 이 캠퍼스의 정체성을 강렬히 드러낸다.

A Threshold Between Memory and Future

The Simone Veil Experimental Campus in Boulogne-Billancourt is conceived as both a spatial and symbolic threshold—a transformative link between the city's industrial heritage and its contemporary aspirations. Situated at the junction of Rue de Meudon, Traverse Jules Guesde, and Place Jules Guesde, the campus occupies a triangular site at the meeting point of two urban worlds: the dense, historic fabric of Boulogne and the open, evolving skyline of the Trapèze eco-district, developed on the former Renault industrial grounds.

At the heart of this intersection stands the preserved Renault fronton, a powerful architectural fragment inscribed with the Republic's motto by artist Benoît Van Innis. No longer a mere relic of the past, it becomes a civic gateway—once the entry point for factory workers, now reimagined as the symbolic threshold for future thinkers, learners, and innov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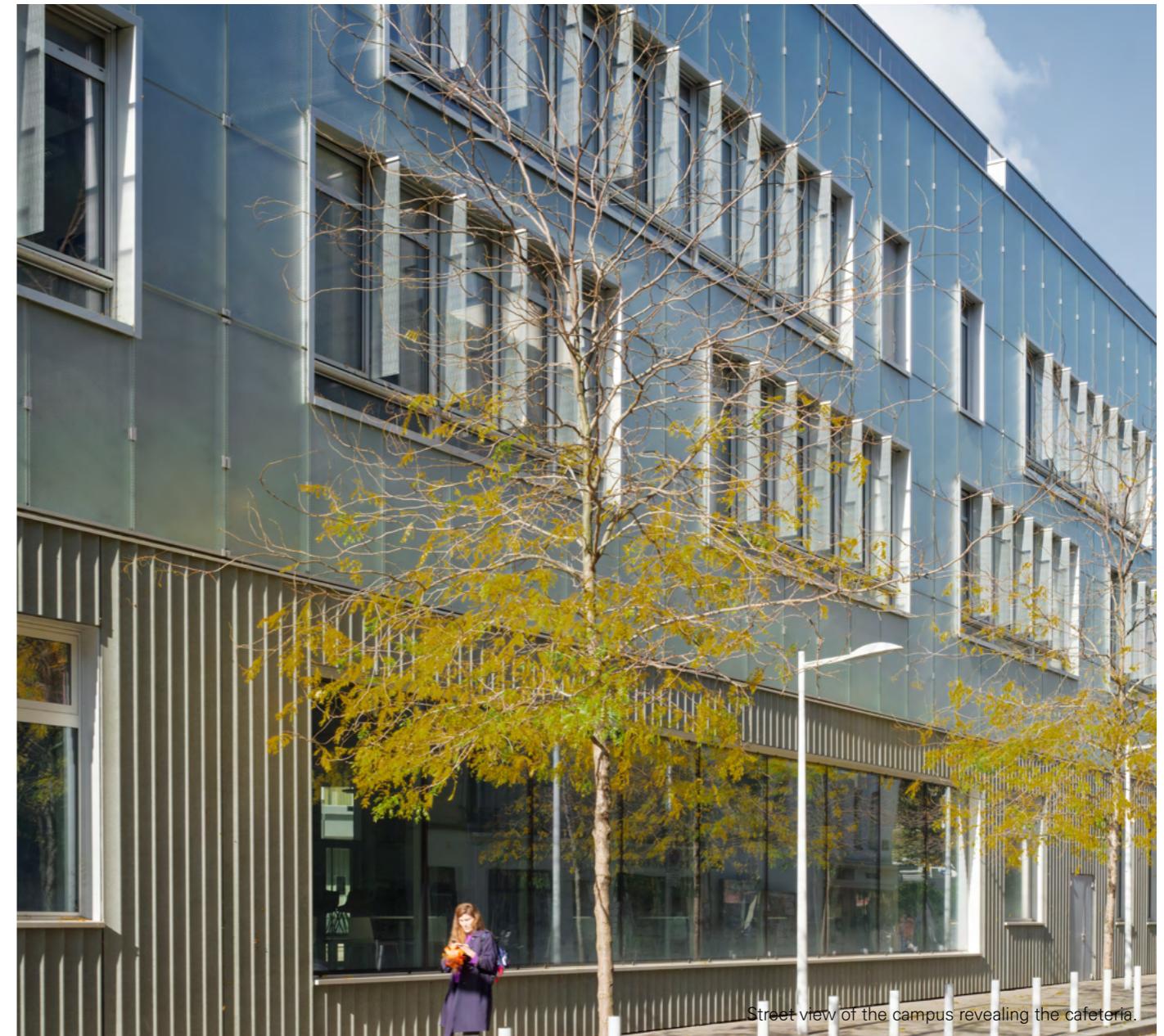
Detail of the junction between the historic pediment and the new façade, featuring a polished mirror j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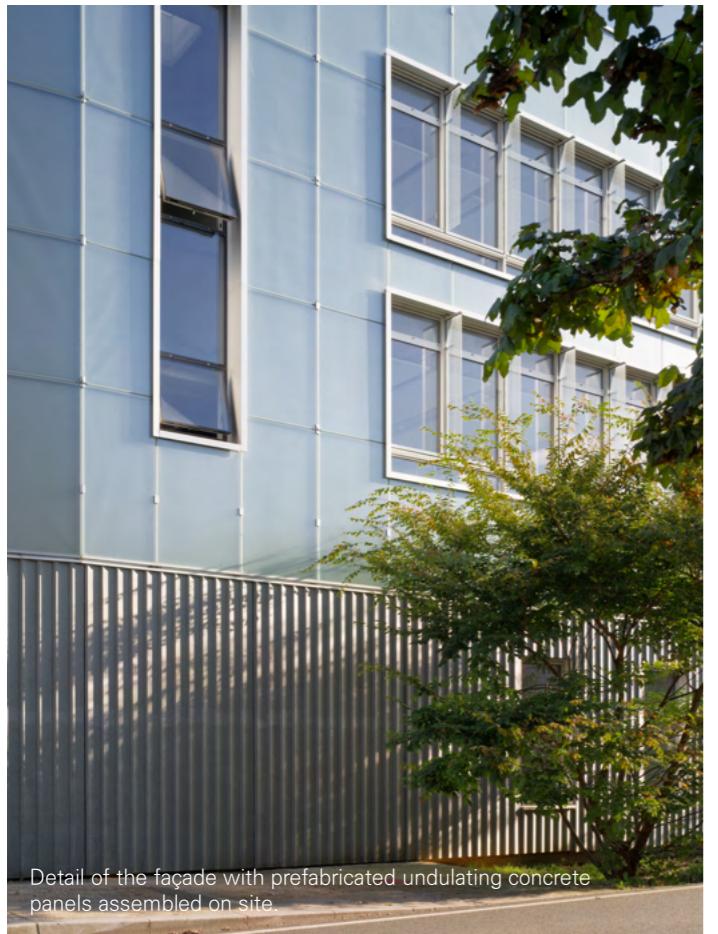


Detail of the translucent façade panels on the interior courty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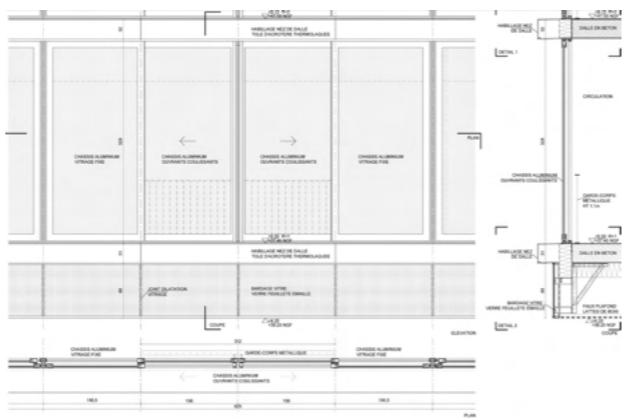


Façade with textile-filter curtains in the distinctive Renault workwear blue
– a symbolic material re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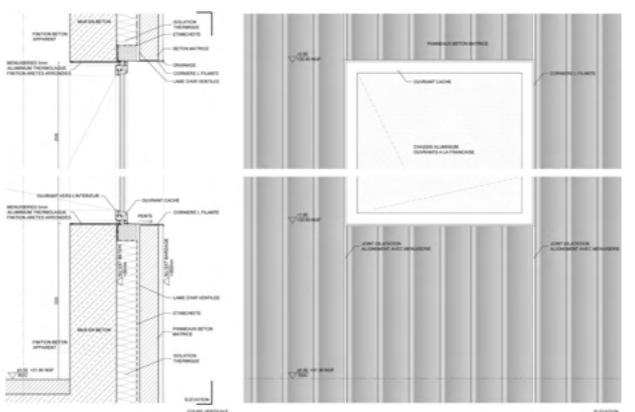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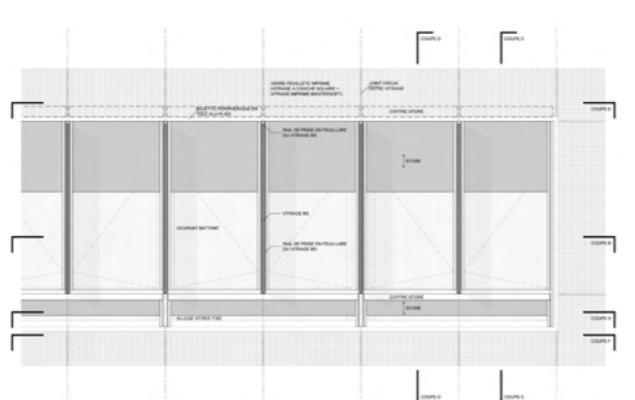
Detail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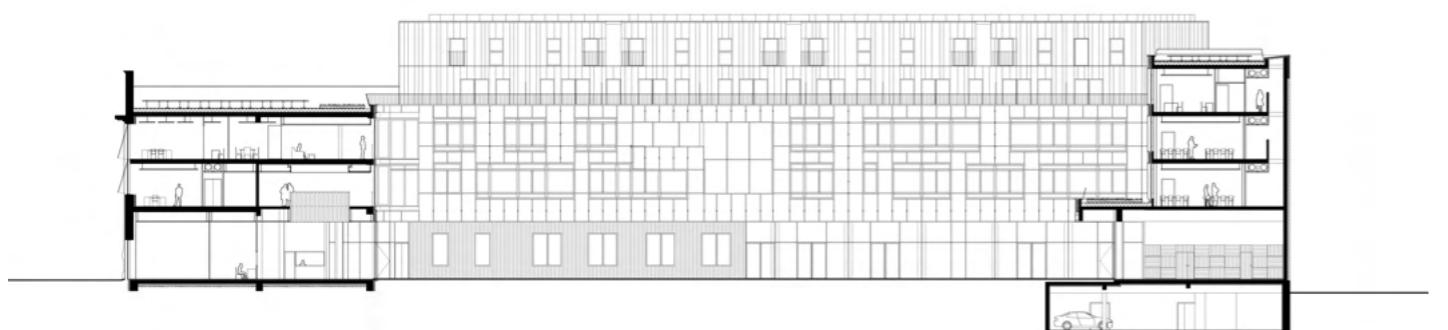
Detail 2



Detail 3



Section A



도시적 개방성과 시민적 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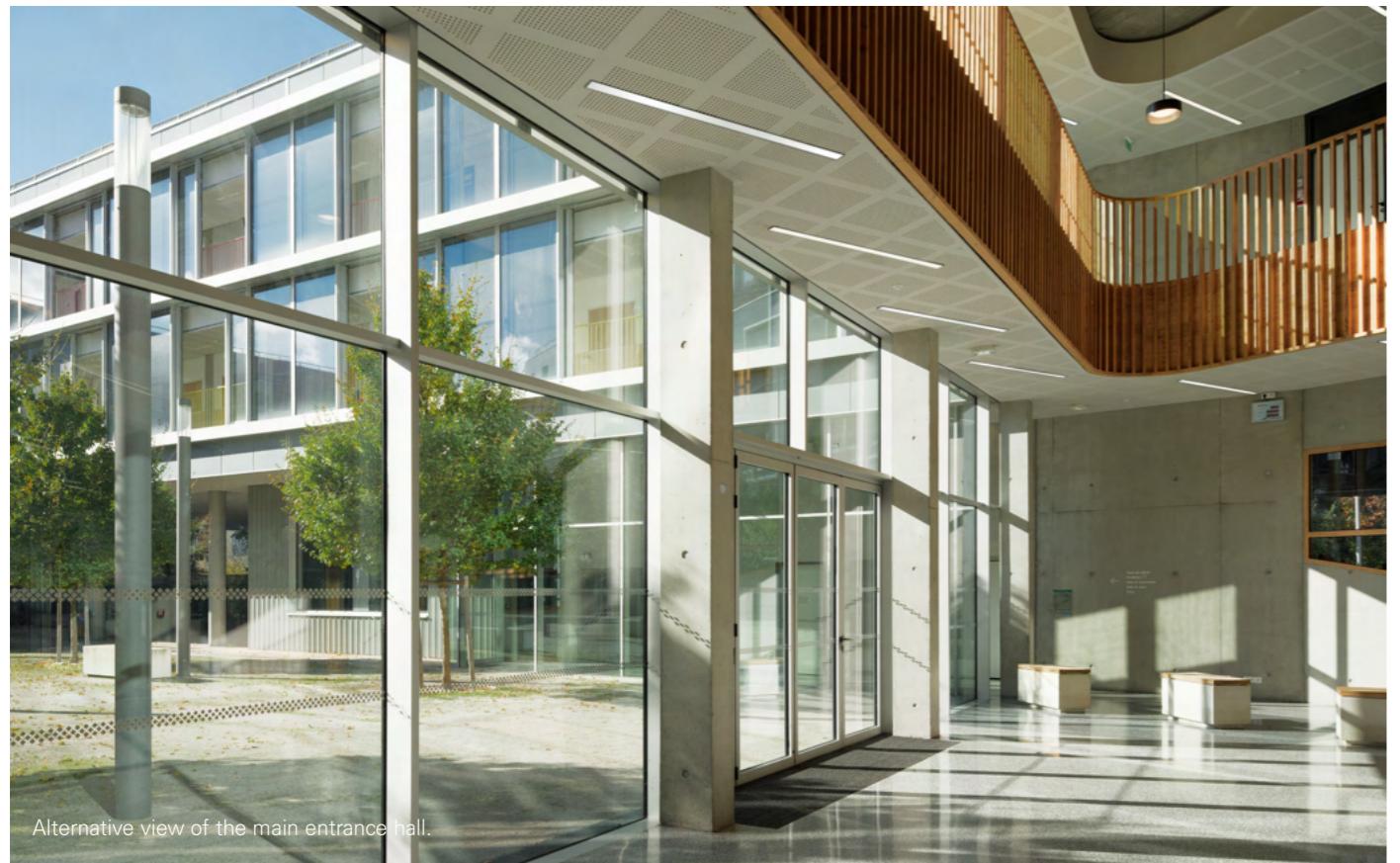
"시몬 베유 캠퍼스(Simone Veil Campus)"는 교육시설과 도시의 랜드마크 사이의 경계를 흐리며, 열린 구조와 포용성을 지닌 '도시적 인프라'로 구상되었다. 필로티 위에 들어선 건물은 도시를 향해 활짝 열려 있으며, 학교, 중앙 앤뜰, 주변 거리 풍경 사이에 유기적 흐름과 시각적 연속성을 창출한다. 1층은 도시의 공공 공간을 확장한 플랫폼 역할을 하며, 강당, 체육관, 커뮤니티 라운지, 레스토랑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학생 모두를 활용하는 열린 커뮤니티의 장으로 기능한다. 이는 학교라는 기능적 경계를 넘어, 지역 생활과 직결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작동한다.

프랑스 최초의 생태 도시 지구 중 하나인 트라페즈(Trapèze) 지구는 생물다양성, 보행 중심의 이동, 시민 공동체의 공유적 삶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 시몬 베유 캠퍼스는 이러한 원칙을 수용하며, 도시와 다음 세대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는 학문적·문화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한다. 교육 공간을 넘어, 이 캠퍼스는 도시적 개방성과 시민적 앵커링을 결합한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한다.

Urban Openness and Civic Anchoring

The campus is designed as an open, inclusive, and porous infrastructure that blurs the lines between educational institution and urban landmark. Raised on pilotis, the building opens itself to the city, allowing public flow, framed views, and seamless spatial continuities between the school, its courtyard, and the surrounding streetscape. The ground floor acts as an extension of public space, where the auditorium, gymnasium, community lounge, and restaurant contribute to the life of the neighborhood, welcoming both students and local residents.

The Trapèze district, one of France's pioneering eco-neighborhoods, champions biodiversity, pedestrian circulation, and shared civic life. The Simone Veil Campus embraces these principles and positions itself as an academic and cultural hub, fostering dialogue between the city and its new generation.



투명성과 유연성, 그리고 시적인 물질성의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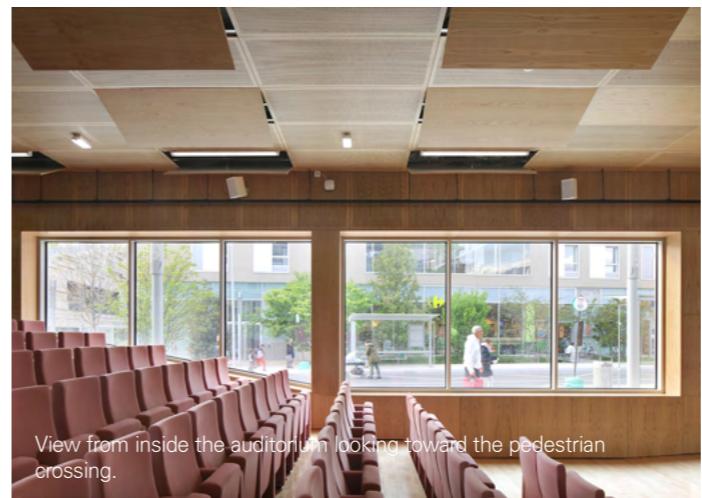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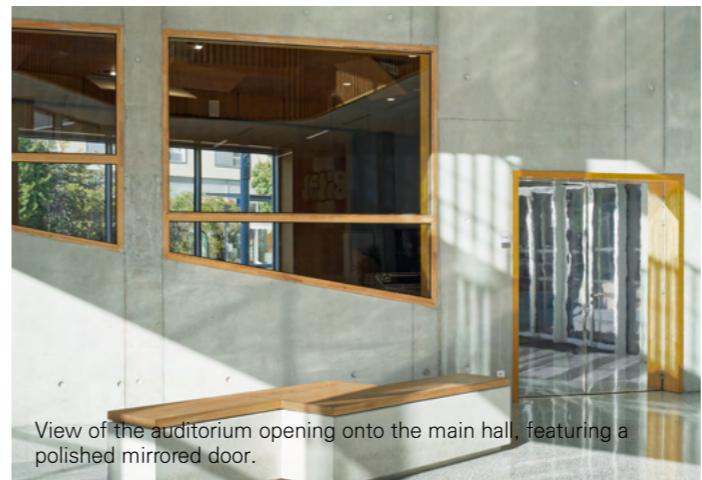
"시몬 베유 캠퍼스(Simone Veil Campus)"는 투명성, 추상성, 모듈러 구조를 핵심 언어로 삼는 건축이다. 주름진 형태의 프리팹 콘크리트, 유약을 입히거나 프린팅된 유리, 그리고 따뜻한 질감의 목재 마감재로 구성된 이 건물은 층위적이며 다면적인 오브제로 드러난다. 가볍고도 단단하며, 이성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이중성을 지닌 형태다.

중심부에 위치한 복층 높이의 로비는 건물 전체의 프로그램을 조직하며, 교실과 공용 공간, 순환 동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심장부'로 작동한다. 이 공간은 학생과 교직원, 방문자들이 자연스럽게 조우하도록 구성된 공간의 안무를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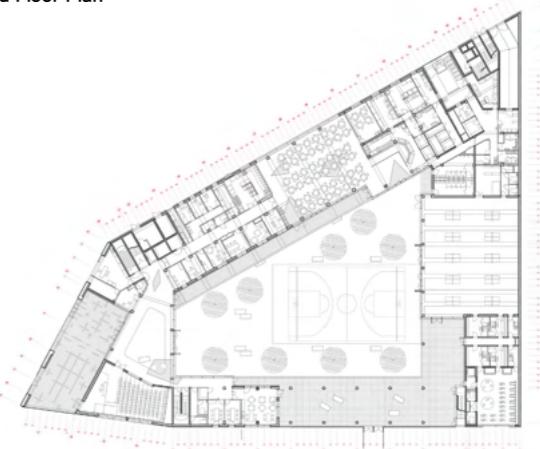
비록 외관은 산업적 재료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부는 부드러움과 온기를 채워져 있다. 섬세한 나무 상감 세공, 유약을 바른 세라믹 벽돌, 아프리카산 목재 패널, 테라조 바닥재, 그리고 르노 블루(Renault Blue) 색조를 띠는 반투명 커튼 등이 공존하며, 장인정신과 기억을 환기시키는 감각적 디테일로 경험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캠퍼스를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닌 '살아 있는 환경'으로 탈바꿈시키며, 주거성과 축각적 아름다움, 그리고 상징적 깊이를 불어넣는다. 감성적 재료성과 프로그램적 유연성이 결합된 이 공간은, 도시와 사람, 기억과 미래를 매개하는 시적인 건축으로 완성된다.

Architecture of Transparency, Flexibility, and Poetic Materiality

The architectural language is one of transparency, abstraction, and modularity. Composed of pleated prefabricated concrete, enameled or printed glass, and warm wood finishes, the campus reveals itself as a stratified, multifaceted object—light yet grounded, rational yet sensuous. A central double-height lobby organizes the program and serves as the beating heart of the campus, connecting classrooms, shared amenities, and circulation routes in a choreography of encounters. While the building is composed of industrial materials, its interiors are imbued with softness and warmth: delicate wood marquetry, glazed ceramic bricks, African wood paneling, terrazzo floors, and translucent curtains subtly tinted Renault blue, all evoke both craftsmanship and memory. These elements transform the campus into a living environment, infused with domesticity, tactile beauty, and symbolic resonance.



Ground Floor Plan





교육과 건축의 실험적 비전

그 이름에 걸맞게 "시몬 베유 실험 캠퍼스(Simone Veil Experimental Campus)"는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니다. 이곳은 미래를 지향하는 공공건축의 새로운 모델이자, 환경 성능과 시민적 관대함, 건축적 시를 결합한 하나의 '프로토타입'이다. 캠퍼스의 공간 구성은 유연성을 핵심으로 한다. 가변형 벽체, 조작 가능한 파사드, 여유로운 순환 공간은 다양한 사용 방식과 계절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이 건물을 고정된 객체가 아닌 진화하는 프레임워크로 정의하게 만든다.

이 프로젝트는 공간을 활성화하고, 집합적 사용을 유도하며, 전환의 과정을 구현하는 건축을 지향해온 미쿠 아키텍츠(Mikou Architectes)의 철학을 반영한다. 이곳에서 전환은 다 총적으로 일어난다. 산업에서 교육으로, 폐쇄에서 개방으로, 과거에서 미래로의 이행이 겹겹이 펼쳐진다. 궁극적으로, 시몬 베유 캠퍼스는 단순한 고등학교 그 이상이다. 그것은 하나의 시민적 유기체이며, 역사에 뿌리를 두되 미래를 향해 단호히 나아가는 존재다. 이 건축은 움직임과 교류, 그리고 전환을 끊임없이 유도하며, 기억과 추진력을 동시에 담아내는 그릇이 된다.

An Experimental Vision of Education and Architecture

True to its name, the Simone Veil Experimental Campus is not just a place of learning, but a prototype—a forward-looking model for public architecture that combines environmental performance, civic generosity, and architectural poetry. Its layout fosters adaptability: movable walls, operable façades, and generous circulation allow for flexible use and seasonal transformation, making the building an evolving framework rather than a fixed ob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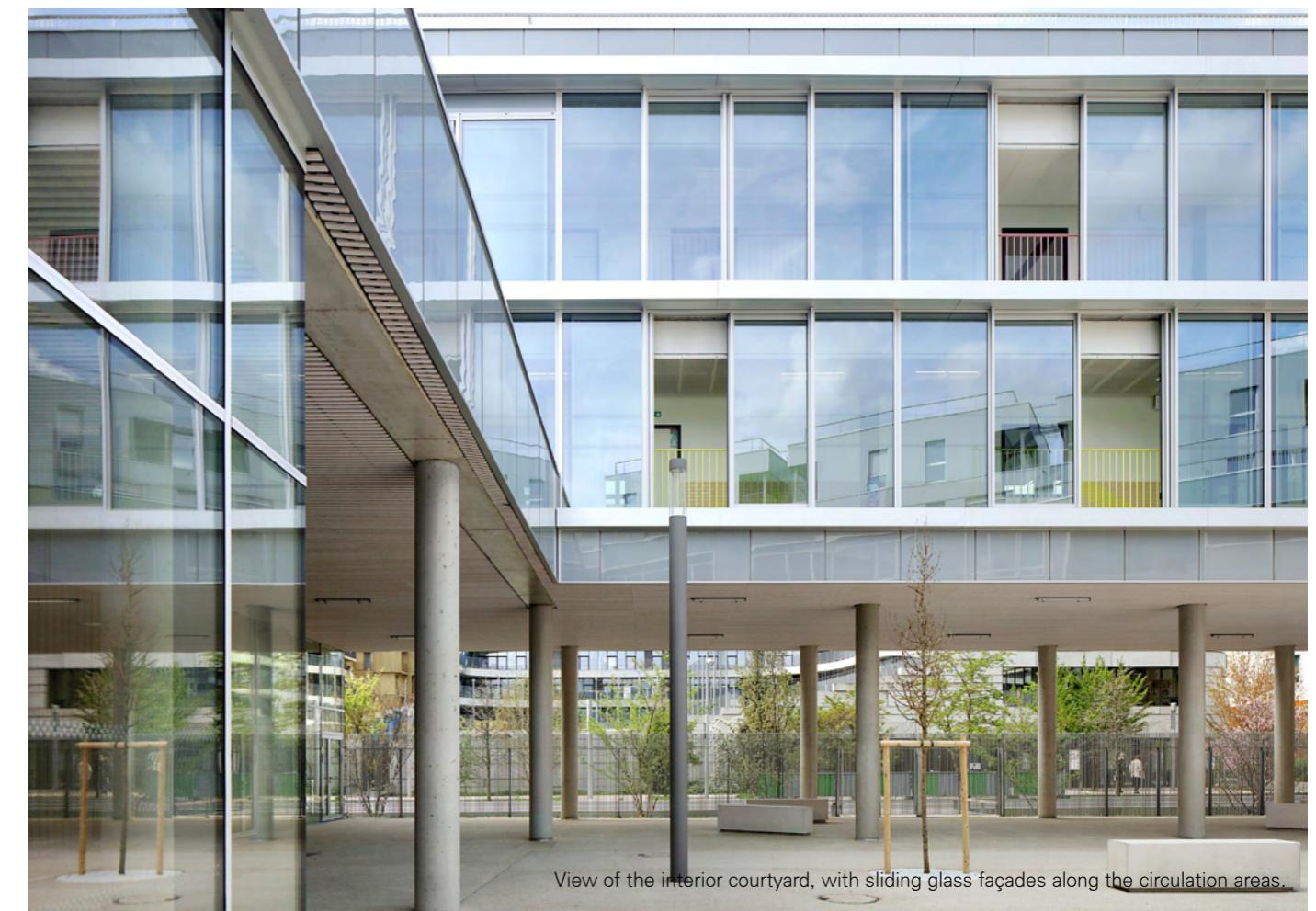
The project reflects Mikou Architects' commitment to designing buildings that act as catalysts—activating space, encouraging collective use, and embodying transitions. Here, the transition is twofold: from industrial to educational, from enclosed to open, from past to future.

Ultimately, the Simone Veil Campus is more than a high school. It is a civic organism, rooted in history, but turned resolutely toward tomorrow. Through its architecture, it invites movement, exchange, and transformation—becoming a vessel of both memory and momentum.





View of the terrace featuring translucent Master-Soft glass panels.



View of the interior courtyard, with sliding glass façades along the circulation areas.



Overall view of the interior courtyard.



CFSM REVIEW

SUMMER 2025 NO.20

CFSM

사단법인 학교건축창의융합포럼
CREATIVE CONVERGENCE FOR SCHOOL ARCHITECTURE



9 772733597003

ISSN 2733-5976